

사회

10월 한파 매섭네

광주·전남 연일 겨울날씨 ... 첫 얼음까지

갑작스레 겨울이 찾아왔다. 목포가 기상청 관측 이래 10월 최저기온(1.0도)을 기록하는 등 10월이 가가도 전에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10월 하순임에도 초겨울 날씨 같은 한파가 찾아온 것은 시베리아에서 만들어진 차고 건조한 대륙고기압이 이례적으로 일찍 발달해 한반도에 영향을 줬기 때문이라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지상으로부터 5500m 상공에서 영하 30도의 차가운 공기를 품은 대륙고기압은 24일까지 만주 북쪽을 중심으로 머물다가 25일 아침 백두산 부근까지 내려왔다. 26일 아침에는 더 남하해 한반도 북부지방 상공까지 세력을 뻗어 한파를 몰고 왔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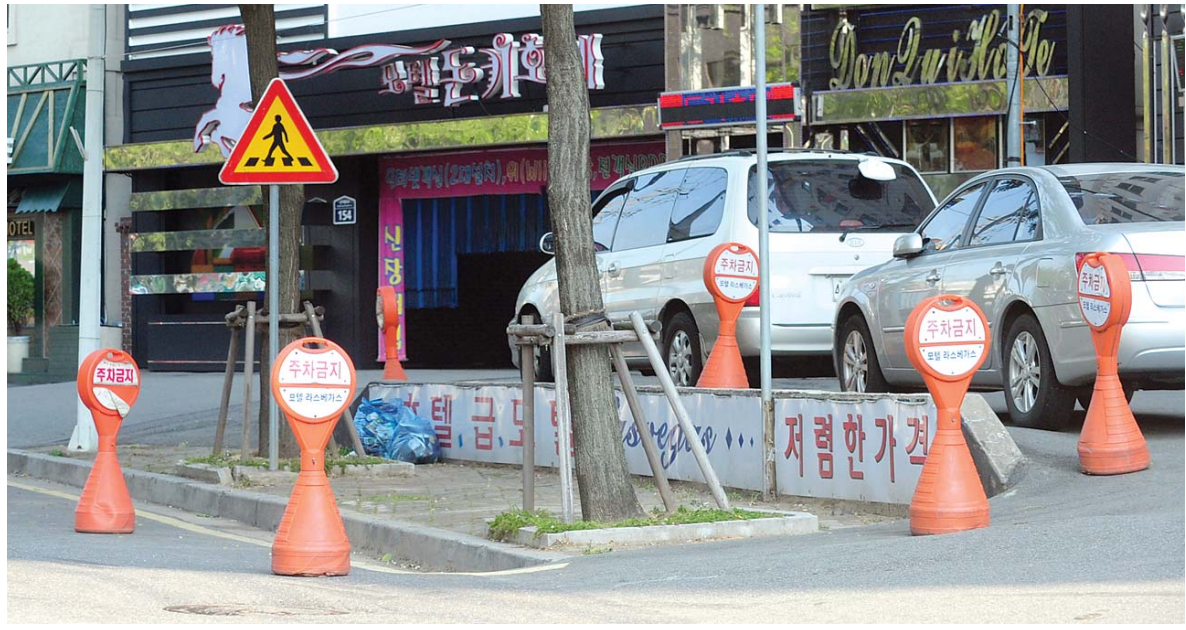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에

이어 27일도 광주·전남지역 곳곳에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추운 날씨를 보였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보성 영하 3.5도, 구례 영하 2.5도, 화순 영하 2.4도, 진도 영하 0.1도, 목포 영상 1.0도, 광주 영상 1.7도 등을 기록했다.

또 광주, 목포, 진도에서 첫 얼음과 서리가 관측됐다. 광주의 경우 첫 얼음은 지난해보다 7일, 서리는 21일 빠른 것이다. 광주와 전남 13개 시·군의 한파주의보는 28일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추위가 이어지다 대륙고기압이 이동성고기압으로 변질되는 29일 낮부터 점차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광주 상무지구 한 모텔 앞 도로에 주차방지봉이 줄지어 서 있다. 인근 모텔들이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미관을 해치고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모텔 앞 도로 '車 방지봉' 무단 설치

상무지구·용봉동 일대 ... 차선 좁아져 통행 불편·사고 위험

홍보효과 노려 급속 확산 ... 구청선 "인력없다" 방치

최근 광주의 모텔 밀집지역 곳곳에 주·정차를 막는 방지봉이 무차별 설치돼 주변 도로의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 특히 모텔 축이 무단으로 설치한 방지봉으로 인해 차선이 좁아져 교통사고가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26일 오후 1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운전저지막 맞은편 모텔 밀집지역 앞 왕복 2차선 도로. 이곳을 서구지역에서도 유독 '주차 민원'이 많기로 유명한 구역이다. 주차금지 표지판을 황색 실선이 그려져 있는데도 모텔 주인들이 저마다 주·정차 방지봉 10여개를 모텔 앞 도로에 1m 간격으로 마구 세워 놓은 것이다.

플라스틱 재질로 높이 1m·지름 20cm의 오펝이 모양을 한 이 방지봉은 모텔촌 앞 보도에서 1m 이상 떨어진

곳에 놓여 있어 차로의 상당 부분을 점하고 있다. 한 모텔에서 시작된 주·정차 방지봉 설치의 모텔 투숙객 차량 외의 주·정차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표면에 모텔 이름이 새겨진 탓에 홍보 효과까지 있어 빠른 속도로 번져나가고 있다.

현재는 인근 모텔 30여 곳 중 10곳의 주변에 주차 방지봉이 빼곡히 세워진 상태다. 같은 날 오후 3시30분께 북구 용봉동 모텔밀집지역 앞길. 양갓길에 주차 방지봉이 설치돼 있었다. 차선이 비좁아지면서 양 방향을 교행하는 두 대의 승용차가 아슬아슬하게 비껴갔다.

운전자 간 승강이를 벌이는 장면도 자주 목격됐다. 6~7대의 승용차가 오펝도 못한 채 멈춰서 있었다. 운전자들끼리 서로 양보할 것을 요구하며 말싸움이 벌어졌던 것이다. 운전자들 간 심한 욕설도 오갔고, 선두 승용차

뒤에서는 경적 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렸다.

이곳을 자주 오가는 운전자 정모(33·광주시 서구 치평동)씨는 "공공 도로를 자기 모텔 앞이라는 이유로 모텔의 주차장 인양 사용하는 행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꼴인데,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조만간 해당 구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나 해당 구청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예산과 인력난을 이유로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해당 구청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단속 인력을 보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법 제65조상 도로 등에 주차금지 물통·타이어 등을 무단 설치할 때 해당 구청의 관련 조례에 따라 적게는 3만원, 많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종행기자 gilee@kwangju.co.kr

밤샘 책 읽고 아침까지 살아남기

조선대도서관 이색 독서축제 ... 내일밤 8시 부터

조선대 중앙도서관(관장 노상재)이 책 읽기 좋은 가을을 맞아 10월 한 달 동안 이색 독서 축제를 마련했다.

축제 기간 중 가장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은 '밤샘 책읽기'다. 오는 29일 밤 8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포박 10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책을 읽는 학생이 승자가 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중앙도서관 3층 인문사회자료실에서 '조대인이 읽어야 할 명저 100선 및 권장 100선' 가운데 원하는 책을 읽는다. 잠들지 않고 아침까지 미션을 완수한

참가자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준다. 현재 참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재학생 뿐만 아니라 졸업생, 시간강사들도 신청하는 등 열기가 뜨겁다.

조선대 도서관은 이에 앞서 28일에는 보성 벌교 태백산맥문학관에서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씨와 함께 하는 문화유적 답사 및 초청강연도 연다.

이와 함께 지정된 도서를 읽고 토론하는 '독서토론회'와 읽은 책을 서로 바꿔보는 '도서교환전' 등의 행사도 개최된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Weather forecast section for today (October 28th). Includes a map of Korea showing weather patterns, a table of temperatures for various cities, and a 7-day forecast. Key information: Today's high/low is 6/18, tomorrow's is 8/18, and the 7-day high/low range is 6/18 to 7/17.

Advertisement for SK Card's 'Touch 1 Card' launch. The card offers 250,000 won for customers and features like 5% discount on domestic travel, 10% on domestic flights, and 1% on domestic hotels. It also includes a 'Touch 1' service for quick transactions.

Large advertisement for 'Korea National Fire Insurance' (국제보청기). The ad features a cartoon knight on a horse and promotes the company's reliability and service. Contact information for branches in Gwangju, Suncheon, Mokpo, and Iksan is provided.

Advertisement for the '2010 9th Ballyo Gogak Festival' (2010 제9회 벌교 꼬막축제). The festival runs from October 29th to November 7th at Ballyo National High School. It features a variety of activities including performances, exhibitions, and food stalls. The organizing committee is Ballyo Gogak Festival Promotion Committee.

Detailed schedule for the '2010 9th Ballyo Gogak Festival' (제9회 벌교 꼬막축제). The schedule is organized by date (11.05, 11.06, 11.07) and time slots. Activities include performances, exhibitions, and food stalls. A table lists the programs and locations for each time slot.

Summary of the festival's theme and participating organizations. The theme is 'Gogak Festival and Gogak Festival Together' (꼬막축제와 함께 합니다). Participating organizations include Ballyo National High School, Gogak Festival Promotion Committee, and various local businesses.